

농민 두 번 올리는 농자재 가격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농연경남도연합회 사무차장

강 수 동

경남도내 농자재 가격 현황 및 문제점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민들의 농자재 구입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농업의 제반 여건들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농가소득조차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는 현실에 반해 농자재 가격은 해를 거듭할수록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어 농민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농자재가격 또한 판매업체마다 천차만별이라 농민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결국 농민들은 농자재를 구매하고도 제 값을 주고 산 것인지 의심이 가지만, 당장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기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비싼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얼마 전 경남 모 지역신문에 “경남지역 농자재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인상되었고 가격표시제가 시행되지 않아 판매점마다 가격차가 커, 농민들이 농자재 구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기사에 따르면 “농협과 일반 농자재 판매상, 철물점 등에서 판매되는 동일 농자재 가격도

판매점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판매상들과 잦은 마찰을 빚는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한다. 못자리용 비닐(200m)의 경우 농협에서는 1만4000원선에 거래되고 있으나 일반 농자재 판매점에서는 1만1000원 1만2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종자 소독약도 농협에서는 850원에 판매되고 있으나 농약상 등 일반 농자재 판매점에서는 최고 950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농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초제인 크라목손 500ml의 경우 함안군내 일반 농약사와 농협에서 지난해까지 4천500여원에 판매했으나, 군내 농약 할인마트서 3천500원에 판매하자 최근들어 원가인 4천원을 무시하고 심지어 3천여원에도 판매하는 등 농자재값이 천차만별이라고 한다. 뿐만아니라 비닐하우스에서 사용하는 비닐의 경우 수박 작목반에 환원금을 책정해 농약사에 따라 공급가격의 10~40%까지 되돌려주는 등 농자재가격이 일정하지 않아 구매를 하는 농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사태는 비단 어제, 오늘날의 얘기는 아

니지만 정도가 날로 심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하루속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제로 경남도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결과 농자재가격 형성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밀양시연합회 사무국장의 말에 의하면 “판매업체간 과다경쟁이 되어 한 판매점에서 어느 품목의 가격을 내리면 다른 판매점에서도 같이 가격조정을 한다”고 한다. 이는 농협 판매장에서도 발생하는 일인데, 이로 인해 저가에 제품을 공급받을 수만 있다면 농민입장에서 이득이겠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못하다. 업체간 과다경쟁에 의한 가격인하는 농자재 유통구조를 혼탁하게 하여

업체 자체적으로도 제살 깎아먹기 식의 부실화를 초래하며, 결국 업체는 다른 부분에서 편법으로 손해를 만회하기 때문에 피해는 농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아래 표는 경남도연합회에서 자체 조사한 도내 시·군별 농약가격표이다. 이 표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농약가격이 시·군별로 20%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활동해야 할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약이 농민단체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은 협동조합개혁 차원에서도 주목해 볼 만한 일이다.

이처럼 농자재 가격이 불안정한 가장 큰 요인은 농자재의 가격정찰제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농약자제별로 가

● 시군별 주요 농약 가격비교

(단위 : 원)

품명	고성(●)	합천	밀양(●)	함안	진주(●)	창녕
후라단	3,000	3,500	2,500	3,500	2,500	3,000
뉴명콤비	4,600	5,000		6,500	5,000	5,000
마세트	2,800	5,000	2,500	3,000	3,000	3,000
근사미	2,000	2,500	2,000	2,000	2,300	2,000
그라목손	3,000	3,500	3,000	3,000	3,000	3,000

※ 5월 27일 현재 일반농약판매점 가격. ●표시는 농민단체에서 운영하는 농약방

● 농협 판매점과 농민단체 판매점 농약가격비교

(단위 : 원)

품명	고성(농민단체)	고성(농협)	진주(농민단체)	진주(농협)
후라단	3,000	3,200	2,500	3,300
뉴명콤비	4,600	5,500	5,000	
마세트	2,800	2,800	3,000	3,300
근사미	2,000	3,200	2,300	3,500
그라목손	3,000	3,800	3,000	4,200

격 공시는 하지만 정부 당국에서도 이에 대한 시행여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지 못해 현장에서의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가격정찰제 정착과 면세확대 등 영농을 위한 정부차원의 농자재 값 안정대책마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그럼 농자재 가격안정화와 저가구매의 대안은 무엇인가?

농자재 가격안정화를 통한 생산비감소의 방법은 농자재가격 형성과정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다.

농자재 판매가격차이가 나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농가의 개별적인 구매는 물량의 한계성 때문에 가격 교섭력이 없는 반면에 조합을 통한 계통구매나 자체구매를 통해 가격을 어느 정도 하락시킬 수 있다. 하지만, 조합을 통한 계통구매 방식은 업체를 견제하고 출고가격을 낮출 수는 있지만 취급물량·지역여건에 관계 없이 전국 일물일가(一物一價)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가격의 경직성을 유발하여 계통공급 가격이 곧 상한가(시장 기준가격)로 적용되므로 농협에서 판매하는 자재가 지역에 따라 오히려 비싼 경우도 있고 대량으로 구매하는 지역농협도 구매실익을 얻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조합별 자체구매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저가 구매는 가능하나 출고가격 인하 및 품질관리·수급조절 등에서 제약이 따르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들을 상호 보완하면서

가격교섭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조합을 이용한 '농자재 지역연합구매'를 적극 검토해 볼 만 하다. 농자재 지역연합구매는 농자재 구매 농협간 연합으로 지역구매물량의 규모화·대량화를 통해 공급업체에 대한 가격교섭력을 높이는 구매방식으로 농협에서도 현재의 계통구매나 자체구매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외에도 환원사업 차원에서 조합원들에게 농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농협의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어려운 농업여건 때문에 농사 자체를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자재구매제도가 아무리 잘되어 있어도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농협도 농민이 없으면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경남농협지역본부가 올해 영농자재비 50억원을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경남농협은 각 지역농협에 지원된 농민 실익사업자금 1천억원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연간 5%수준의 이자) 50억원을 오는 6월말까지 도내 농민에게 무상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정책들이 확대되어야 농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농협 또한 농민들로부터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농자재 지원에 대한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여 점점 어려워지는 농업여건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농업소득으로 생활비는 고사하고 생산비도 충당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지금의 농촌현실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정부에 있다는 것을 당국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농연**